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40 40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채널A 뉴스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동네로 오세요 55 바르셀론 고요말	0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2	00 KBS 뉴스12	05 시간을 달리는 TV(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재)	10 KBC 생활뉴스 30 여름방학특집 미니영국
1	50 뉴스특급	00 KBS 평영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2	00 방학 특선 공공일 일요일 정영실쇼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30 토크 키즈스쿨	00 건강 클리닉(재)
3	00 직언직설	00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 55 튼튼생활제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10 자동차부채상 위기 40 TV 유치원 콩다콩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우리끼리 탐구 생활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라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올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00 내 마음의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들어온 황금복)
8	20 구원의 법상(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시간을 달리는 TV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 55 국민대합창 우리끼리	00 수목 드라마 (여섯부부)	00 드라마 스페셜 (용왕이)
11	00 아내가 뿔났다 스페셜	00 KBS 뉴스라인 40 드로미안, 스스로 날다	10 해피 투게더	15 자기가 백년손님
12	40 카톡쇼 X	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 리그 다이아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	14:30 마틸다사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끼 탐험대	19:50 청춘! 세계도전기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오늘
07:15 책과 평화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산촌별곡)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16:20 원더블즈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00 당동당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30 우당탕탕 아이쿠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20 로보카 폴리(재)	13:05 역사채널e	16:45 책과 땅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10 초등 6학년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한국에 산다
08:50 코코몽 3	13:30 초등 5학년 여름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4:05 역사채널e
09:05 원더블즈(재)	13:50 초등 4학년 여름방학생활	17:30 두다다콩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10 배울 너머	17:45 로보카 폴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어보기>	12:15 올림포스 <국어II-읽어보기>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II>
05:00 뉴탑스런 <화학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 <세계지리>	19:20 " <세계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 <이문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듣기>	21:50 " <문학 B형〉
11:00 " <수학I B>	22:30 박범의 이슈로 만드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무역영어 급급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출제문제 수학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15일의 기적 <국어(3)(4)>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50 " <수학2>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10:30 " <영어2>	18:00 TV 중학 <수학3(해)>
11:10 " <사회2>	18:40 " <영어3>
11:50 " <과학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 특강
13:00 데일리 서울형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15일의 기적 <국어(5)(6)>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수학3>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14:30 " <영어3>	22:40 동영산공 <과학3(해)>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필독 중학 <사회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음 6월 22일 甲寅)

子	48년생 외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일치한다고 보면 오산이다. 60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해야 백 번 나올 것이다. 72년생 운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84년생 뜻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2, 69
丑	49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61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73년생 처음과 거의 인식할 만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85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1, 55
寅	38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50년생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할만 하다. 62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74년생 선택의 여지가 있다. 86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73
卯	39년생 평시에 가져 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51년생 안팎까지 매끄럽게 처리하자. 63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75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87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61, 03
辰	40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52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으니라. 64년생 서막에 이르자 마자 기다이 잡히리라. 76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49, 15
巳	41년생 밤상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3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65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77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6, 62

午	42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 해야 할 때다. 54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66년생 준비하다가 허무해할 때 보내게 될 수도 있으니라. 78년생 원만한 상태이니 현재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47, 17
未	43년생 세밀히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55년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67년생 가장 기본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니라. 79년생 바야흐로 성사의 대국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07, 91
申	44년생 활용에 보는 것도 괜찮다. 56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 68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80년생 벌어진 틈을 메우지 않으면 이탈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7, 08
酉	45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57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인이 떠오를 것이다. 69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81년생 기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40, 28
戌	46년생 직면한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합당하다. 58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70년생 과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성과가 크겠다. 82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77
亥	47년생 결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니라. 59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느니라. 71년생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다. 83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87, 5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배우들 색깔 잘 드러난, 배우를 위한 영화”

영화 ‘베테랑’ 류승완 감독

5일 개봉하는 ‘베테랑’은 ‘액션키드’ 류승완 감독(사진)의 연출도, ‘천만배우’ 황정민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도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영화다.

비정한 사회 현실을 촌충한 스틸러로 풀어낸 ‘부당거래’ (2010), 유럽 무대에서 남북한 정보요원들이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 ‘베를린’ (2013) 등 전작들보다 어깨에 힘을 뺐으나 박진감은 더욱 넘친다.

류 감독은 “이제 (관객을) 아프게 하는 건 좀 알 것 같다”고 말하며 씩 웃었다.

“‘부당거래’ 이후부터 권투를 즐겨 하는데 경력이 많이 쌓인 복싱인수 스텝이 가벼워요. 제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공부와 수련인데 저한테도 뭔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웃음)”

그러면서 그는 이내 잘 빠진 액션 장면들의 공을 정두홍 무술감독과 서울엑션스쿨 멤버들에게 돌렸다. 이번 영화 촬영 중에는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 때 사고가 나 액션배우가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영화가 워낙 이렇게 사람이 다쳐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수록 이 친구가 자랑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저는 컴퓨터그래픽(CG) 티가 나는 걸 못 견뎠어요. 아무리 화려한 CG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건 못 따라가요. 진짜 사람이 하는 걸 보는 쾌감이 있거든요. 아직은 관객에게 그런 게 통한다고 생각해요.”

‘베테랑’은 행동파 형사 서도철(황정민)이 안하무인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의 범죄행적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일을 조용히 넘기려는 압력이 여기저기서 들어올수록 서도철은 끈질기게 달려든다. 류 감독은 서도철이라는 인물을 분명히 ‘서민영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계급적으로 서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실제 황정민이라는 배우도 부당할 것 같아 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현장에 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집단 무기력증 같은 게 있잖아요.”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류 감독은 차기작으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어난 하시마(端島)를 배경으로 하는 ‘군함도’ (가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류 감독은 차기작으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어난 하시마(端島)를 배경으로 하는 ‘군함도’ (가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SG워너비, 4년만에 완전체로 컴백

오늘 새 앨범 ‘더 보이즈’ 발매

보컬 그룹 SG워너비(김용준, 이석훈, 김진호)가 이달 새 앨범을 내고 4년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CJ E&M은 SG워너비가 작곡가 조영수와 손잡고 오는 19일 새 앨범 ‘더 보이즈’(THE VOICE)를 발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가장 SG워너비다운 음악을 선보이고자 ‘내 사람’과 ‘라라라’ 등의 대표곡을 작곡한 조영수와 다시 손잡았다. 조영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멤버들도 만족할 앨범을 완성시켰다”고 작업 소감을 밝혔다.

이날 SG워너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김용준은 “4년간의 개인 활동 시기 동안 멤버들은 우정을 지키고 서로 응원했다. 제게 있어 SG워너비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리더로서 SG워너비 완전체로 컴백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앨범 발매에 이어 10월 9~10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24일 대구, 31일 부산 등지를 돌며 전국투어를 개최한다. SG워너비는 2004년 ‘타임리스’(Timeless)로 데뷔해 ‘살다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나 자신부터 내가 응원하는 대상이 승리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관객이 그런 쾌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영화의 대결구도가 뚜렷하고 들려주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류 감독은 성장기에 액션 영화를 끼고 자란 액션키드이자 영화광이다. 그동안 액션물에 이련저런 변주를 시도했던 류 감독은 ‘베테랑’에서 자신의 ‘전공’과 취향을 망설임 없이 밀어붙이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배우들의 색깔이 점점 잘 드러난다는 것도 그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변화다.

“베테랑”에서는 특히 거칠고 투박한 집념의 형사 황정민, 귀티 나는 악당 유아인 등 적재적소에 배치된 배우들이 불만만 고기처럼 팔딱거린다. 두 주연배우뿐 아니라 오달수, 유해진, 정웅인, 장운주, 유인영, 천호진, 김승우 등 쟁쟁한 배우들이 끝도 없이 등장한다.

“저도 하루는 촬영하다가 캐스팅 보드를 보고 ‘헛’했어요. 내가 배우들을 어떻게 다 모았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엄지 내밀고 ‘기준! 여기 여기 붙어라!’ 하니까 다들 모인 게 아닐까요? (웃음) 이전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또 자랑하겠다는 배우들에게는 정말 감사해요. 새로 모신 분들께도 당연히 그렇고. 배우들을 보면 나도 뭔가 해야 하게 되죠. 영화는 배우에 의한, 배우를 위한, 배우의 영화예요.”

류 감독은 차기작으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어난 하시마(端島)를 배경으로 하는 ‘군함도’ (가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류 감독은 차기작으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어난 하시마(端島)를 배경으로 하는 ‘군함도’ (가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류 감독은 차기작으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어난 하시마(端島)를 배경으로 하는 ‘군함도’ (가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가’, ‘라라라’, ‘죄와 벌’, ‘내 사람’ 등의 히트곡을 내며 2005~2007년 가요계 미디움 템포 발라드 장르를 크게 유행시킨 그룹이다.

2011년 7집의 파트2 앨범과 같은 해 싱글 ‘사랑할’을 낸 뒤 멤버들의 소속사가 달라졌고 김용준과 이석훈이 군 복무를, 김진호가 솔로 앨범을 내며 팀 활동이 중단됐다. 두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지난 1월 CJ E&M과 전속 계약을 맺고 새 앨범 준비를 해왔다.

노현희, 세미 트로트 가수로 데뷔

앨범 ‘미대 나온 여자’ ... 역경과 치유 담아

텔런트 노현희(사진)가 앨범 ‘미대 나온 여자’를 발표하고 세미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노현희는 이날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앨범을 공개했다. 앨범 ‘미대 나온 여자’에는 타이틀곡인 ‘미대 나온 여자’와 ‘어려요’ 등 두 곡이 수록됐다. 노현희는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과정을 그만의 감성으로 노래에 담아냈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타이틀곡 ‘미대 나온 여자’는 학벌과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을 미대 출신으로 포장하는 위트 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



이다. SG워너비, 씨아, 에일리 등과 호흡을 맞춘 한승훈과 배용이 작곡에 참여했다. ‘아름다운 구속’, ‘별써 일 년’ 등으로 유명한 작사가 한경애가 가사를 맡았다.

노현희는 그동안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1일 방영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마음고생 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